

담양군, 관광약자 위한 ‘청각여행’ 새 콘텐츠 선보

시각장애인 대상 소리 풍경 체험
지역 죽녹원·한재골 근린공원 코스
헤드셋 제공 등 미세소리 청취 지원
2025년부터 운영 전문 해설 병행

담양군이 시각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해 특별한 소리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신규 관광콘텐츠 ‘청각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내 죽녹원과 한재골 근린공원 코스를 개발해 내년 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 까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한재골 근린공원에서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80명을 대상으로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에게 청각 기반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해 문화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담양군

과 GKL 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담양군 명소인 죽녹원, 한재골 근린공원 코스를 만들었으며 참여자에게는 녹음기·헤드셋 등 자연의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전용 장비가 제공된다.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등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대나무 나이에 따라 두들기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계절마다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 좋은지 등 전문적인 해설과 열매들을 만져

보는 시간도 함께한다.

담양 청각여행 프로젝트는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한다.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사전 가이드 교육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실시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증수수료 등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소상공인 45개소에 1000만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3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 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1월15일 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곡성군,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19일 시문학기념관서

곡성군이 조태일 시인의 25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제6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과 ‘2024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을 개최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죽형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여 있는 시, 움직이는 시’를 주제로, 조태일 시인의 시 정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석곡지역아동센터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가수 겸 작곡가 서혁신 님이 조태일 시인의 시를 노래로 풀어내고 이흥기 바리톤의 공연도 열린다.

류경, 박두규, 정원도, 한종근 시인의 시 낭송이 이어진다. 정원도 시인은 조태일 시인의 연작시 ‘국토’의 일부를 뽑아 내 재구성한 ‘매시업 국토’를 낭송한다. 전국 시인들의 시화전도 펼쳐지며 이번 행사에서는 조태일 시인의 육성도 들을 수 있다.

이번 ‘제6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는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로 주목받은 박석준 시인이다. 심사위원들은 박 시인의 작품에 대해 “음울한 세계를 담아내는 정직한 슬픔이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절망의 힘이며, 시가 가진 책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시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행사가 열릴 예정인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은 죽곡면 원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참석자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시에서 오후 1시15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작가회의(062-523-7830)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여수시, 제도 활성화 홍보도

여수시는 지난 15일 진남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여수시민체육대회 현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여수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최재영 세무사가 현장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세무 상담에 나섰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국제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 문제로 힘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강화
화순군, 작물 바이러스 예방

화순군은 가을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농업 현장에서 작물 재배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장 채소인 무, 배추가 정식 후 고온으로 인해 생육이 지연되었으나 9월 말부터 예년 기온으로 회복 중이고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의 경우는 정식기 및 초기 생육 단계이다.

이에 맞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료 주기(웃거름 주기·결구 시기 엽면 시비), 병해충 방제(무름병·뿌리혹병·나방류 등), 마늘, 양파 발아 및 초기 생육 불량 방지 등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설원에 농가에서는 외부에 서식하던 해충이 따뜻한 실내로 유입되는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LV)와 총채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 시 감염증상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 출입구, 측창, 천창 주변에 끈끈이 트랩, 방충망 등을 설치하고 해충이 발견된다면 적용약제를 약 5~7일 간격으로 3~4회 방제해야 한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 시설원에 토마토·딸기 등 주요 원예작물이 재배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가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안정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난 14일 광양시 중마동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들이 임신부·영유아를 위한 간식을 만들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조리실습

지난 14일 광양시 중마동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간식 만들기 및 영양식 조리 실습이 진행됐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영양 보충과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고려해 검정콩 햄버거와 닭고기 감자 리조토를 실습 메뉴로 선정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 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조

신안서 세계 최대 직경 모새나무 군락지 발견

보호 차원 위치 비공개

세계 최대 직경을 자랑하는 모새나무 군락지가 전남 신안군에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생명자원 모새나무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신안군 중부지역 일대에서 모새나무 자생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집단 군락지에 발견된 모새나무는 최고 크기가 수고 6m, 근부직경 68cm(누적 근원경 64.46cm)에 달했다.

모새나무는 정금나무, 들쭉나무와 함께 우리나라 토종 블루베리로 알려져 있다. 모새나무의 검은색 열매 추출물은 피부 미백용 화장품 원료, 전립선 비대증 예방 및 치료 등의 약용으로도 두루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모새나무 잎을 활용해 자색밥이나 모새잎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안군의 모새나무 집단 군락지는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군락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수령과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규명할 계획이다.

여수시, 착한 소비 이끄는 ‘공정무역 축제’

여수시가 19일 중포해양공원 일원에서 ‘따뜻한 이름, 공정무역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4년 여수시 공정무역 축제’를 개최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공정무역이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거래 방식으로, 공정한 가격 보장을 통해 생산자는 노동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말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YMCA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공정무역의 이해를 높이고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름다운가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참여해 공정무역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

한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공정무역 쿼츠맛추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공정무역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정무역 축제를 통해 공정한 노동 조건의 보장, 아동과 환경을 존중하는 공정무역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공정무역이 일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